

제165호(2018. 7. 17.)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목 차
contents

1. 미중 무역분쟁 개요	1
2. 미중 농식품 교역 현황과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	3
3. 국내외 대두 수급 현황 및 전망	8
4. 국내외 돼지고기 수급 현황 및 전망	15
5. 시사점	21

감 수	김종진 연구위원	061-820-2382	jkim@krei.re.kr
내 용 문 의	문한필 연구위원	061-820-2259	hanpil@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7.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178-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마찰 심화
 - 미국은 3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7월 6일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IT·의료·로봇·항공 등의 첨단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 중국 또한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미 중서부 지역을 겨냥하여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두 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을 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분쟁 격화
- 중국이 올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농림축산물은 309개이며, 이들 품목의 전체 수입액 703억 달러 중에서 미국산 수입액은 197억 달러로 28% 차지
 -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의 최대 규모는 ‘MFN 관세율+50%’로 두 차례 보복관세를 받은 돼지고기가 이에 해당
- 전체 농식품 교역에서는,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보다 2배가량 높지만, 대두와 수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돼지고기는 중국과 멕시코가 동시에 보복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하락과 함께 미국의 수출물량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
-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정을 감내하고, 장기적으로 남미와 유럽, 호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작물 수입 확대,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국내 생산장려정책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미국의존도를 낮출 계획
- 국내 채유용 대두의 올해 소비물량에 대한 구매가 종료되었지만, 내년 상반기 도입물량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대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사료효율 측면에서 남미산이 선호되는 대두박의 경우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의해 당분간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 부분 미국으로의 수입전환이 예상됨.
- 현재 수입 돼지고기 재고도 포화상태이고, 국내 사육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해 있어 미중 통상 마찰이 지속될 경우,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국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한편, 한·미 FTA 개정 및 자동차 등으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임. 더욱이 미국은 중국시장이 봉쇄됨에 따라 여분의 농축산물 수출물량을 기존 수입국들이 흡수하도록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

01 | 미중 무역분쟁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통상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 정책을 추진**

-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기체결된 무역협정의 재설정과 철강, 자동차 등 자국 기간산업 관련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음.

□ **올 초부터 미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 실패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은 3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¹⁾ 조사결과를 근거로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
-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4월 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철강·알루미늄 외에도 과일, 견과류, 인삼, 포도주, 돼지고기 등 농식품 94개 품목 포함)에 대해 15%(돼지고기와 햄은 25%)의 관세를 부과
- 또한, 미국은 7월 6일 ‘통상법 301조’²⁾에 따라 50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 관세를 부과할 계획

1)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은 1962년에 공산권의 확장을 막고자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 ‘무역확장법 232조’임. 이 조항은 1995년 WTO가 발족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활을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

2)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한 통상법(Trade Act) 가운데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흔히 통상법 301조~310조까지를 ‘통상법 301조’로 통칭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통상법 302조에 근거해 중국의 법과 정책, 관행, 조처 등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발전을 해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 중서부 지역을 겨냥하여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

- 여기에는 중국의 ‘기술 굴기(屈起)’를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IT·의료·로봇·항공 등의 첨단제품들이 대거 포함
-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5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과 동일한 날짜에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조치를 우선 시행
 - 545개 품목은 농림축산물 295개, 수산물 222개, 자동차 및 부품 28개로 농수산물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114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의료설비, 에너지 관련 제품 등 모두 공산품임.
- 미국은 7월 10일, 이러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응해,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착수했으며, 앞으로 2개월 동안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발효 일정과 품목을 확정할 예정임을 공표
- 한편, 중국은 소비재 및 자동차 관세인하와 외국기업들의 자국 시장접근 개선을 통해 미국의 경쟁국들에 더 나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압박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일방주의에 맞서 자유무역·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도모
 - 중국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목적과 함께 소비시장을 개방하는 조치의 하나로 7월부터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1,449개 일용소비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³⁾
 - 중국은 7월부터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당초의 25%에서 15%로 인하했음. 따라서 7월 6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보복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되는 차량에는 40%의 관세가 적용됨.
 - 또한, 중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제한 품목(네거티브 리스트)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이외에도 중국은 7월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라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일부 화학제품, 의료용품, 의류, 농수산물의 관세를 인하하였음.⁴⁾ 특히, 중국의 최근 관심품목인 대두, 콩가루, 콩깻묵, 어분 등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율은 모두 폐지됨.

3) 여기에는 조미료, 소시지, 통조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수산물 387개 품목이 포함됨. 이들 농식품의 평균 관세율은 15.2%에서 6.9%로 인하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한·중 FTA 실행관세율보다 더 낮게 조정됨.

4) 이들 6개국은 지난 10년간의 협상 끝에 2016년에 협정국 간 관세를 1년 뒤에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를 이행한 것임.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만 개 이상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

02 | 미중 농식품 교역 현황과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

농식품 교역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2배가량 높음

□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미중 간 농식품 무역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

- 중국의 대미국 농식품(HS 01~24류, 03류 제외)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해 농식품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 중국의 대미국 농식품 수입액(억 달러): ('02) 21 → ('17) 206, 연평균 증가율 16.6%
 - 중국의 대미국 농식품 수출액(억 달러): ('02) 12 → ('17) 58, 연평균 증가율 11.4%
- 최근 3년 동안(2015~2017) 중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8%인 반면,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임.

〈표 1〉 중국의 대미국 농식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대미국 수입			대미국 수출			무역 수지	
		200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0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02년	2017년
01류	산동물	12	16	1.6	4	27	12.8	-8	11
02류	육류 및 식용 설육	526	1,187	5.2	5	4	-1.0	-521	-1,183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26	428	19.1	13	15	1.1	-13	-413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92	112	1.2	184	265	2.5	92	153
06류	산수목·꽃	1	4	6.7	8	43	11.8	7	39
07류	채소	9	45	10.7	94	770	15.1	85	725
08류	과실·견과류	50	766	18.6	30	142	10.9	-20	-624
09류	커피·차·향신료	2	18	15.4	36	228	13.2	34	210
10류	곡물	28	1,510	28.2	0	2	10.4	-28	-1,508
11류	제분공업제품	4	23	12.5	2	10	12.1	-2	-14
12류	채유용 종자, 공업·약용식물, 사료	988	14,580	18.3	32	147	10.8	-956	-14,433
13류	식물성엑스	12	21	3.9	22	243	17.2	11	222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4	9	6.0	3	11	8.8	-1	1
15류	동식물성유지	37	138	8.6	6	84	18.9	-31	-53
16류	육·어류 조제품	7	5	-2.4	345	1,402	9.8	338	1,397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9	79	14.3	31	181	12.5	22	102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13	29	5.4	6	34	11.7	-6	5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2	120	15.4	28	184	13.4	16	64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45	272	11.9	189	1,089	12.4	144	818
21류	기타 조제식품	62	417	12.7	52	427	15.0	-9	11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4	133	25.5	19	63	8.3	16	-71
23류	조제사료	121	523	9.6	23	435	21.7	-98	-88
24류	담배	5	170	25.0	20	13	-2.7	15	-157
합 계		2,067	20,603	16.6	1,153	5,818	11.4	-914	-14,785

자료: 중국농업 브리프 2018(6),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중국의 두 차례 보복관세의 부과로 미국산 농식품에는 최대 'MFN 관세율+50%'의 수입관세가 적용

□ HS 2단위 기준으로 2017년 중국의 대미국 최대 수입 품목군은 채유용 종자(HS 12류)이며, 전체 대 미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에 달함.

- 중국의 대미국 주요 수입(5억 달러 이상) 품목군은 채유용 종자(HS 12류), 곡물(HS 10류), 육류(HS 02류), 과실·견과류(HS 08류), 조제사료(HS 23류) 순임.
- 중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5억 달러 이상) 품목군은 육·어류 조제품(HS 16류), 채소·과실 조제품(HS 20류), 채소(HS 07류) 순임.

□ 중국이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해 올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309개에 달하며,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의 최대 규모는 'MFN(최혜국) 관세율+50%'임.

-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4월 2일 중국이 부과한 농식품 94개 품목 중 14개 품목(인삼, 포도주, 햄, 냉동베리류)은 7월 6일에 부과한 295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80개 품목(과실 견과류, 돼지고기)은 4월 2일과 7월 6일의 관세부과 대상에 모두 포함되며, 각각의 보복관세율은 합산되어 적용됨.
 - 예를 들어, 돼지고기 두 품목(02031900, 02064100)은 기존 MFN 관세율 20%에 232조 관세부과(25%)와 302조 관세부과(25%)가 더해져 7월 6일 이후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70%의 관세율이 적용됨.

〈표 2〉 미국산 농식품 품목별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수준

품목(괄호 안은 HS 8단위 품목 수)	232조 보복관세율(4/2)	301조 보복관세율(7/6)	미국산 적용 수입관세율(7/6)
과실견과류(73개), 에탄올(1개)	15%	25%	MFN+40%
돼지고기(6개)	25%	25%	MFN+50%
햄(1개)	25%	-	MFN+25%
인삼(3개), 포도주(5개), 냉동베리류(5개)	15%	-	MFN+15%
대두, 곡물, 과일, 쇠고기 등(201개)	-	25%	MFN+25%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CH18017(2018.4.2.), CH18034(2018.6.21.)

□ 중국이 미국산 농식품에 대해 두 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한 품목들의 2016~2017년 평균 대세계 수입액은 703.4억 달러이며, 이 중 미국산은 197.4억 달러로 28%를 차지

- 7월 6일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품목 545개 중 농림축산물 295개 품목의 대세계 수입액은 675.6억 달러이며, 미국산 수입액은 196.5억 달러임.⁵⁾
- 4월 2일에만 보복관세가 부과된 14개 품목(인삼, 포도주, 햄, 냉동베리류)의 대세계 수입액은 27.8억 달러이며, 미국산 수입액은 0.9억 달러임.
- HS 2단위 품목류로 볼 때,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30% 이상인 품목류는 박류(99.8%), 사료(72.3%), 주류(62.1%), 과일견과류(44.7%), 식물성섬유(39.8%), 두류(37.2%), 곡류(33.7%) 순

□ 중국의 관세부와 품목 중에서 대미국 수입액이 가장 큰 농산물은 대두(HS 1201.9010)로 수입액이 138.6억 달러에 달함.

- 미국산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두가(70.5%)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돼지고기(6.4%), 수수(5.6%), 면화(3.8%) 순
- 이외에도 1억 달러 이상이 수입된 품목은 기타사료(2.1%), 양조박(1.9%), 밀(1.5%), 유장(1.2%), 에틸알코올(1.0%), 잎담배(0.9%), 피스타치오(0.7%), 체리(0.7%), 옥수수(0.6%) 등임.

〈표 3〉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농식품의 수입 현황(수입액 1천 달러 이상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번호	품목				수입액 ('16~'17 평균)			주요 수입국(2017년)
	품목명	HS코드	MFN 관세율	미국산 관세율	대미국 (A)	대세계 (B)	비중 (A/B)	
1	대두	1201.9010	3	28	13,857	36,878	37.6	브라질 52.8, 미국 35.1 , 아르헨티나 6.8
2	돼지고기	0206.4900	12	62	905	2,279	39.7	미국 41.4 , 덴마크 10.4, 독일 10.1, 스페인 9.4
		0203.2900	12	62	212	1,869	11.4	스페인 21.5, 독일 17.3, 미국 11.0 , 덴마크 10.0
		0203.2200	12	62	135	834	16.2	캐나다 20.4, 독일 18.5, 미국 16.9 , 스페인 16.1
3	수수	1007.9000	2	27	1,108	1,227	90.4	미국 93.3 , 호주 6.7, 미얀마 0.0
4	면화	5201.0000	40(1)	65(26)	745	1,872	39.8	미국 44.9 , 호주 22.8, 인도 8.8, 우즈베크 7.9
5	기타사료	1214.9000	7	32	408	519	78.6	미국 77.5 , 호주 16.7, 캐나다 3.5
6	양조박	2303.3000	5	30	375	376	99.8	미국 98.7 , 베트남 0.5, 프랑스 0.5
7	밀	1001.1900	65(1)	90(26)	236	502	47.1	미국 57.1 , 캐나다 30.8, 호주 9.7
		1001.9900	65(1)	90(26)	63	414	15.3	호주 70.9, 미국 19.4 , 카자흐스탄 8.5

5) 7월 6일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품목 545개 중 수산물 222개 품목과 자동차 및 부품 28개 품목의 2017년도 대미 수입액은 각각 12.9억 달러와 129.4억 달러임.

8	유장	0404.1000	2	27	234	559	41.7	미국 42.8, 프랑스 17.2, 네덜란드 9.6, 독일 5.2
9	에틸알코올	2207.2000	5	70	194	201	96.3	베트남 91.7, 미국 3.2, 일본 2.6, 독일 0.7
10	잎담배	2401.2010	10	35	174	1,174	14.8	짐바브웨 47.2, 브라질 22.4, 미국 14.1
11	피스타치오	0802.5100	5	45	138	152	90.8	미국 97.1, 이란 2.3, 호주 0.7
12	체리	0809.2900	10	50	137	781	17.5	칠레 70.7, 미국 22.1, 캐나다 3.4, 뉴질랜드 2.9
13	옥수수	1005.9000	65(1)	90(26)	108	618	17.5	우크라이나 61.6, 미국 26.6, 라오스 7.5
14	오렌지	0805.1000	11	51	81	312	25.9	남아공 30, 미국 22.7, 이집트 20.5, 호주 20.1
15	포도	0806.1000	13	53	53	608	8.7	칠레 37.6, 페루 22.6, 호주 22.1, 미국 8.8
		0806.2000	10	50	22	49	44.4	미국 45.2, 우즈벡 36.8, 칠레 8.3, 터키 3.6
16	아몬드	0802.1200	10	50	56	58	96.9	미국 96.3, 호주 2.2, 이탈리아 0.9, 태국 0.4
		0802.1100	10	50	19	19	99.2	미국 99.9, 키르기스스탄 0.1
17	포도주	2204.2100	14	29	64	2,376	2.7	프랑스 41.1, 호주 26.7, 칠레 10.5, 미국 3.0(6위)
		2204.2900	20	35	5	136	3.3	칠레 37.8, 호주 26.1, 스페인 23.1, 미국 1.3(6위)
		외 3개	14-30	29-45	2	70	2.9	-
18	분유	0402.1000	10	35	44	498	8.8	뉴질랜드 46.5, 호주 15.6, 미국 9.9, 독일 9.1
		0402.2100	10	35	16	1,283	1.3	뉴질랜드 90.2, 호주 3.6, 프랑스 1.8, 미국 1.5
19	치즈	0406.2000	8	33	21	110	19.2	뉴질랜드 62, 미국 21.8, 덴마크 9, 영국 1.6
		0406.9000	8	33	17	107	16.7	호주 30.6, 뉴질랜드 22.5, 미국 18.5, 이탈리아 12.1
20	사과	0808.1000	10	50	45	119	37.7	뉴질랜드 40.1, 미국 39.4, 칠레 14.7, 프랑스 1.9
21	크랜베리	2008.9300	15	40	40	47	86.8	미국 85.8, 칠레 8.5, 말레이시아 2.3, 캐나다 2.3
22	자두	0809.4000	10	50	33	112	29.0	칠레 67, 미국 26.6, 스페인 6.3, 뉴질랜드 0.1
23	호두	0802.3200	20	60	18	19	93.4	미국 96.3, 키르기스스탄 2.4, 이탈리아 0.8
		0802.3100	25	65	11	14	80.4	미국 78.7, 칠레 15.2, 호주 6.1
24	완두	0713.1090	5	30	25	395	6.3	캐나다 92.1, 미국 5.2, 호주 2.0, 영국 0.6
25	기타견과류	0802.9090	24	47	19	145	12.9	북한 44.4, 파키스탄 23.5, 러시아 14.8, 미국 14.2
26	마카다미아	0802.6190	12	52	17	65	26.4	호주 58.1, 미국 21.9, 남아공 16.1, 짐바브웨 2.4
27	개사료	2309.1090	4	29	15	35	43.0	미국 42.7, 캐나다 27.9, 뉴질랜드 10.1, 독일 7.6
28	인삼류	1211.2010	7.5	22.5	14	35.3	40.1	캐나다 64.3, 미국 35.6
		외 2개	20	30	0	10.1	0.0	-
29	쇠고기	0202.3000	12	37	9	2,449	0.4	브라질 32.3, 호주 19.6, 우루과이 18.4, 미국 0.7(7위)
		0201.3000	12	37	2	59	3.9	호주 89.2, 미국 7.0, 뉴질랜드 3.8
30	냉동베리류	0811.9090	30	45	3	124	2.6	태국 38.3, 스웨덴 16.0, 말레이 14.2, 미국 2.8(8위)
		0811.1000	30	45	1	20	4.6	모로코 35.2, 칠레 22.5, 이집트 19.0, 미국 9.2
		외 3개	25-30	40-45	0	6	0.1	-
31	햄	0203.1200	20	45	0	0	36.1	미국 76.9, 프랑스 23.1
소 계					19,681	59,535	33.1	-

주 1) 전체 309개 농림축산물 중 수입액 규모가 천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수입액은 2016~2017년 평균임.

2) 관세율 중 괄호 안은 TRQ 이내 물량, 괄호 밖은 TRQ 이외 물량의 관세율임.

3) 포도주는 22041000, 22042200, 22043000, 인삼류는 12112091, 12112099, 냉동베리류는 08112000, 08121000, 08129000 이 포함됨

자료: 중국농업 브리프 2018(6),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중국은 트럼프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주요 대두 생산지역이라는 점과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 두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중국농업과학원 주최 제1회 ‘중국농산업발전보고’ 대회(2018.6.26.)에서 미중 양국의 관세부와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 중 대두, 면화, 쇠고기, 양고기, 기타 곡물의 수출액은 약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남미와 유럽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및 개방 확대,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대두 대체품의 수입 확대, 국내 생산장려정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올해 4월 중국은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미국산 수수에 무려 179%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임. 수수는 중국에서 주로 주정용과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호주산 수수 및 보리와 같은 대체 곡물의 수입을 늘리고 있는 중임.
 - 면화의 경우, 중국은 호주와 인도, 서아프리카, 브라질 등으로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미국에서 면화를 수입해 중국 등에 원사를 수출하는 베트남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3%, 0.2%로 미미한 수준임(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산 수입비중은 약 23%). 또한, 쇠고기와 양고기는 주로 남미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이 줄어들어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임.
- 대두와 돼지고기의 경우, 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자 교역국이며, 중국의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부과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한국 또한 이들 품목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03 | 국내외 대두 수급 현황 및 전망

3.1. 세계 대두 생산 및 교역 현황

□ 대두 주요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이며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 주요 소비국은 중국, 미국, EU 등이며, 최근 중국의 대두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음.

○ 2017/18년 미국과 브라질의 콩 생산량은 각각 1억 1,952만 톤, 1억 1,302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각각 35.2%, 33.3%를 차지

○ 중국의 연간 대두 소비량은 약 1억 1,000만 톤으로 전 세계 소비량의 32%를 차지하며, 대부분 가공용(채유 및 사료 원료)으로 사용됨.

- 중국의 대두 소비비중(%): ('05/'06) 20.6 → ('10/'11) 25.9 → ('17/'18)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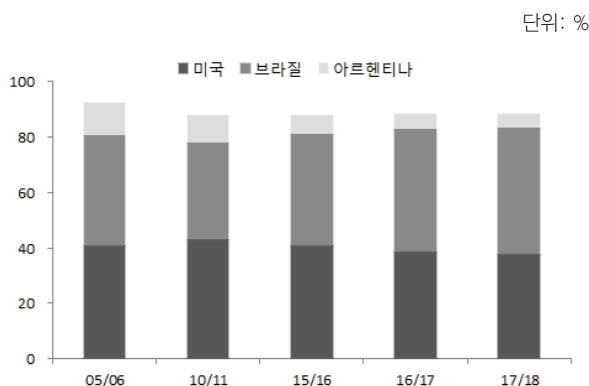
□ 대두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이 중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 비중은 전 세계의 84%를 차지함. 또한, 주요 대두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 멕시코 등이며, 최근 중국의 대두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음.

○ 미국 대두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05/06년 40.8%에서 2017/18년 38.0%로 감소한 반면, 브라질의 점유율은 동기간 39.8%에서 45.6%로 높아져 세계 1위로 올라섬.

○ 2017/18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64.7%(9,600만 톤)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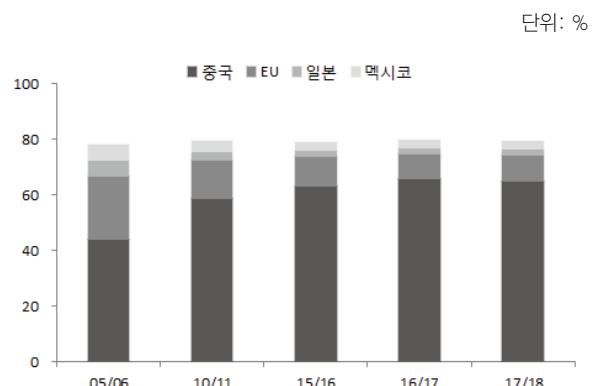
- 중국의 대두 수입비중(%): ('05/'06) 43.9 → ('10/'11) 58.6 → ('17/'18) 64.7

〈그림 1〉 국가별 대두 수출량 비중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수급모형(GEM-LOCS).

〈그림 2〉 국가별 대두 수입량 비중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수급모형(GEM-LOCS).

대두의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57.5%이며,
중국의 대미 수입의존도는 34.4%

3.2. 미중 대두 교역 현황

□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두물량은 3,195만 톤으로 미국의 대두 총 수출량의 57.5%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23억 3,700만 달러에 달함.

○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비중(물량, %): ('15) 56.6 → ('16) 62.3 → ('17) 57.5

〈표 4〉 미국의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만 톤, %

구분	2015		2016		2017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전체 합계(A)	18,878	4,815	22,821	5,772	21,591	5,558
중국(B)	10,497	2,724	14,179	3,596	12,337	3,195
멕시코	1,409	353	1,459	363	1,594	393
네덜란드	456	112	786	196	1,103	283
일본	1,047	239	996	235	960	228
인도네시아	763	186	950	247	893	232
B/A	55.6	56.6	62.1	62.3	57.1	57.5

자료: Global Trade Atlas.

□ 중국의 주요 대두 수입국은 미국, 브라질이며, 최근 중국의 브라질산 수입이 증가 추세

○ 중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에서 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미국산 대두의 수입비중은 전체의 34.4%(3,285만 톤), 브라질 대두 수입비중은 53.3%(5,093만 톤)임.

○ 근래 미국산 대두가 수확된 이후인 11~3월에도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이 늘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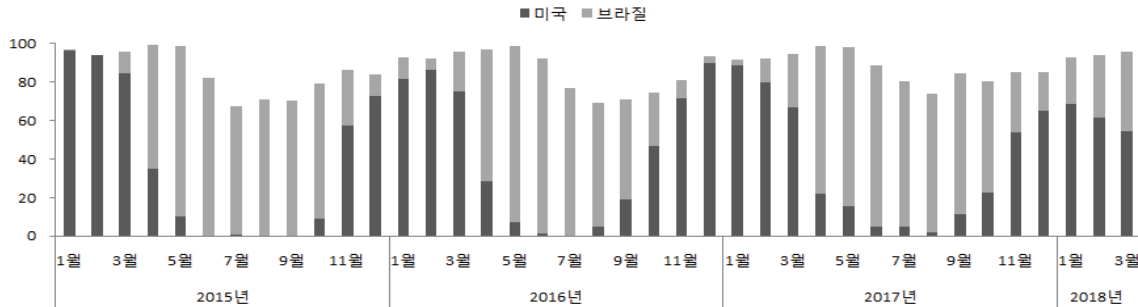
- 대두 작기의 특성상, 국제시장에서 11~익년 3월 기간은 미국산 대두가 주를 이루고, 4~10월 기간은 브라질산 대두가 큰 비중을 차지

- 그러나, 2017년 11월~2018년 1월 기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비중은 62.4%로 전년 동기 대비 21.1%p 감소한 반면, 브라질산 대두 수입비중은 25.5%로 전년 동기 대비 20.2%p 증가

- 한편, 중국은 금년 1월 미국산 콩에 대해 이물질이 1% 이상 혼합된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그림 3〉 중국의 월별 미국산/브라질산 콩 수입비중 추이

단위: %



자료: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3.3.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대두시장 파급영향

□ 7월 12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 보고서에 따르면, 2018/19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3억 5,949만 톤, 수출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1억 5,732만 톤으로 전망

○ 2018/19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보다 1.9% 감소, 브라질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0.8% 감소하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전년 대비 54.1% 증가할 것으로 전망⁶⁾

○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9,500만 톤으로 전망

○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나, 브라질의 수출량은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향 조정된 미국 대두의 수출량 전망치임. 전월의 수출량 전망과 비교할 때, 미국은 6,232만 톤에서 5,552만 톤으로 11% 하향 조정된 반면, 브라질은 7,295만 톤에서 7,500만 톤으로 3% 상향 조정됨.

표 5. 국가별 대두 수급 추이

단위: 백만 톤

구분		이월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2017/18 (추정치)	세계	96.67	336.70	154.28	152.24	96.02
	미국	8.21	119.52	0.60	56.74	12.64
	브라질	26.46	119.50	0.23	74.65	25.00
	중국	20.39	14.20	97.00	0.15	23.44
2018/19 (전망치)	세계	96.02	359.49	154.36	157.32	98.27
	미국	12.64	117.30	0.68	55.52	15.77
	브라질	25.00	120.50	0.43	75.00	24.65
	중국	23.44	14.50	95.00	0.15	19.1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18.7.12.

6) 현재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남미산 대두는 4월 이후 수확되는 2017/18년산이고 미국에서 대두가 생산이 시작되는 10월까지 거래됨. 2017/18년 브라질 대두 생산량은 2016/17년보다 4.3% 증가한 1억 1,950만 톤이나, 아르헨티나 생산량은 겨울철 라니냐로 인한 가뭄피해로 전년보다 32.7% 감소한 3,700만 톤으로 추정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가격 간의 격차가 굳어지고 용도별 수급불안정이 지속될 수도

□ 국가별 대두 작기를 고려했을 때, 금년 3/4분기까지는 브라질산 대두가 세계 대두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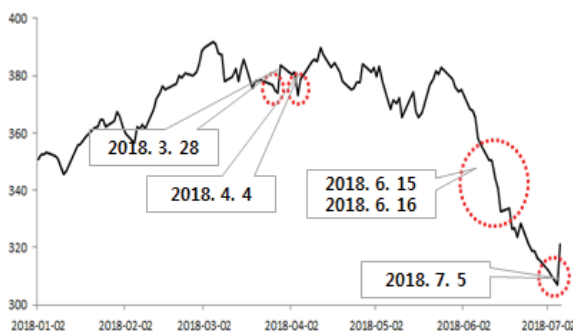
- 중국은 수입된 대두의 대부분을 채유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데, 브라질산 대두는 사료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축산 및 사료업체들의 경우 브라질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⁷⁾
- 최근 5개년의 중국 대두 수입패턴과 국가별 수입물량을 고려했을 때, 7월 이후로는 중국이 여타 수입국인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서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

□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기 시작한 3월부터 대두 선물가격이 하향세를 보이다 6월 중순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가격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됨.

- 3월 들어 대두 선물가격의 변동이 확대되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4월 4일(대두는 부과 대상에 미포함)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2% 하락(373.04달러/톤)⁸⁾
- 6월 14일 미국의 관세부과 계획 발표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인해 중순 이후 대두 선물가격이 폭락을 거듭함에 따라 톤당 330달러 선이 붕괴됨.

〈그림 4〉 대두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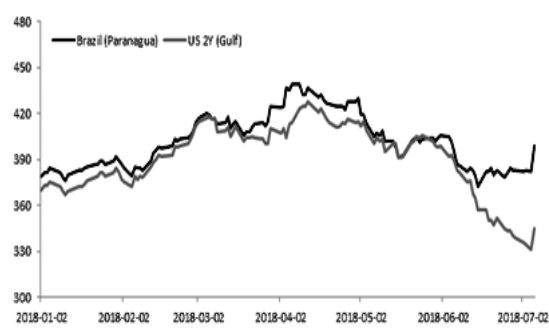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자료: 시카소 선물거래소(CBOT).

〈그림 5〉 미국과 브라질 대두 FOB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 7) 대두박은 축산 및 양어용 사료 원료로 이용되는데, 대두박은 팜박, 야자박 등 다른 원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나 사료효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대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8) 5월 관세부과 철회 계획을 담은 미중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전후로도 시장에서는 미국산 콩 수출수요 감소 우려로 가격이 크게 변동함. 6월부터는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남미 국가의 화폐까지 하락, 양호한 2018/19년산 미국 콩 생육상태 지속으로 콩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

중국은 당분간 남미산 대두 수입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흑해 연안, 인도 등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의 수입 증가를 모색

- 7월 5일 대두 선물가격은 연중 최저치인 톤당 306달러까지 하락했으나, 7월 6일, 양국의 관세 부과 시행 이후 콩 선물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없었음.
 - 관세부과 시행에 대한 우려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 시행 현실화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숏커버링으로 가격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양상
- 이에 따라 미국 대두의 수출가격은 브라질 대두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
 - 6/8: 381달러/톤(98.7%) → 6/18: 357(93.5) → 6/28: 340(88.8) → 7/6: 345(86.5)

3.4.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방향

- 중국은 대두자급률이 14.2%(’17년)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한 데다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 외에 중국이 대두를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은 남미, 캐나다, 인도, 흑해 주변국 등이 있음.
- 중국은 당분간 2017/18년산 대두 수확이 완료된 브라질에서 수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 반면, 기상요인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아르헨티나산 수입 확대는 어려울 것임.⁹⁾
- 다른 대안으로 흑해지역 국가에서의 대두 수입도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기상악화로 EU의 밀, 옥수수 생산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EU는 흑해지역에서 곡물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흑해 지역 국가의 수출항에서는 EU 국가로의 곡물 수출과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 간 경합이 불가피함. 하지만 흑해 지역 국가는 수출항의 곡물 수용능력이 크지 않은 데다 밀, 보리, 옥수수 수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흑해 지역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육로를 통한 대두 수입은 아직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인도의 경우 자국 내 대두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인도로부터 많은 양의 대두를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인도산 대두 수입도 추진될 수도 있음.
- 그밖에 중국은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등에서 대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카놀라(유)나 팜너트(팜유) 등의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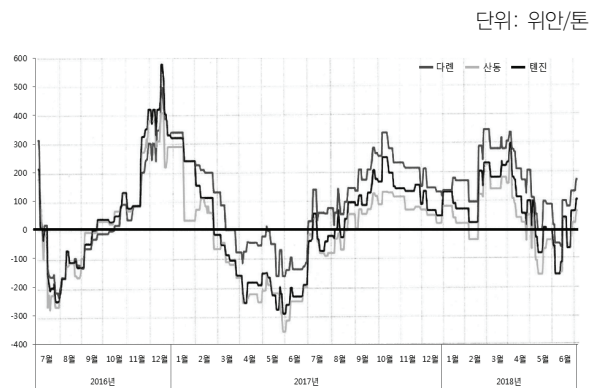
9) 아르헨티나는 대두 원물보다는 가공 후 대두박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두박에 부과되는 수출세도 대두 원물보다 낮게 책정됨 (2017/18년산 수출세: 콩 26.0%, 대두유 23.0%, 대두박 23.0%).

□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옥수수에서 대두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늘면서 최근 콩 생산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자국에서 생산된 대두를 이용한 대두박 가공마진은 마이너스이고, 수입 콩을 이용한 가공마진도 4월 이후로는 높은 편이 아님. 따라서 자국 내 대두를 가공하여 국내 대두박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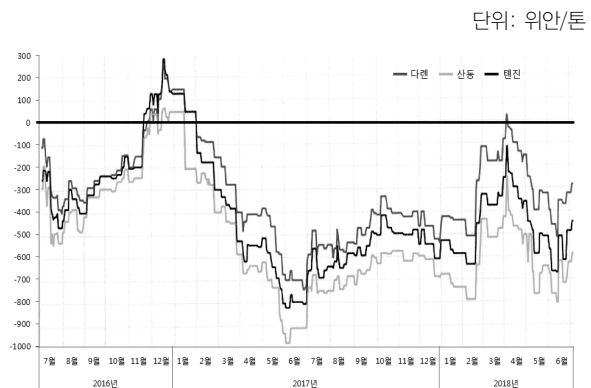
□ 여타 대두 생산국으로부터 대두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의 대두 가공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대두유와 대두박의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6〉 중국의 수입 콩 가공마진 추이



자료: 로이터.

〈그림 7〉 중국의 자국산 콩 가공마진 추이



자료: 로이터.

3.5. 우리나라 대두 수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대두 주요 수입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식용, 채유용 대두는 미국 수입비중이 높고, 대두박은 남미산의 수입의존도가 큼.

- 식용 수입량은 23만 5천 톤('17년)이며, 이 중 미국산 수입비중이 90.2%로 대부분을 차지
- 채유용 대두 수입량은 103만 4천 톤이며, 국가별로는 브라질 49만 6천 톤(48.6%), 미국 38만 9천 톤(37.6%)임. 대두박의 경우, 남미산이 전체 수입량의 95.5%(162만 9천 톤)를 점유

□ 미국의 GM 대두 재배면적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바이오안전성백서, 2008), 국제 대두 선물 가격은 GM 대두의 대표가격임. 반면, 국내로 수입되는 식용 대두는 Non-GM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대두 선물가격 하락이 식용 대두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국내 채유용 대두의 저장물량이 최대치에 도달해 있어 선물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구매가 당분간 쉽지 않은 반면, 남미산이 선호되는 대두박은 가격상승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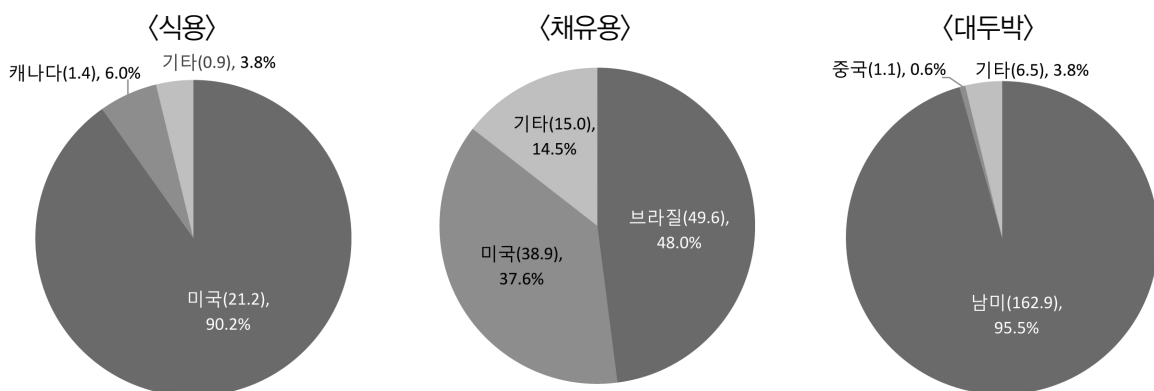
□ 채유용 대두의 경우, 금년 12월 도착분에 대한 구매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6월 대두 선물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은 2019년 상반기 채유용 대두 수입단가부터 반영됨.

- 단, 수출항구 베이스스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 대두 선물가격 하락이 내년 도입단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내 채유용 대두의 연간 구매물량은 100만 톤 정도이며, 이미 올해 소비물량에 대한 구매가 종료되었고, 국내 저장수용 능력,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밀어내기 물량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임.
- 반면, 내년 상반기 도입 물량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대두의 구매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 채유하고 남은 대두박은 국내 수요업체에 판매하거나, 간헐적으로 일본으로 소량 수출됨. 따라서 대두 가공 수익성 여부에 따라 국내업체가 국내에서 채유하고 남은 대두박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동안 국내 대두박 수입은 사료효율이 높은 브라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박으로 일정 부분 대체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이 증가하면서, 브라질산 대두박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대두박 도입단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8〉 우리나라의 대두 용도별·국가별 수입 비중(2017년)



자료: 관세청

04 | 국내외 돼지고기 수급 현황 및 전망

4.1. 미국과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 및 교역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소비 국가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임.

- 중국은 2017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1억 1,093만 톤)의 48.2%인 5,350만 톤을 생산하고, 세계 수입량(788만 톤)의 20.9%인 165만 톤을 수입하여, 5,494만 톤의 돼지고기를 소비하였음(세계 소비량의 49.7%).
 - 중국은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2016년)으로 2017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1.1% 증가함. 국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7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의 218만 톤보다 24.3% 감소한 것임.
- 미국은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10.6%인 1,172만 톤, 소비량의 8.9%인 960만 톤을 소비하며, 수출량은 259만 톤으로 세계 수출량(828만 톤)의 31.3%를 차지
 - 미국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7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3.6% 증가함. 이로 인해 미국 내 돼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멕시코, 일본,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2017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의 238만 톤보다 8.9% 증가하였음.

〈표 6〉 미국과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중국			미국			세계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공급	생산	54,870	52,990	53,500	11,121	11,320	11,722	110,422	110,137	110,928
	수입	1,029	2,181	1,650	506	495	506	6,719	7,986	7,884
	소계	55,899	55,171	55,150	11,627	11,815	12,228	117,141	118,123	118,812
수요	소비	55,668	54,980	54,935	9,341	9,475	9,597	109,953	109,817	110,500
	수출	231	191	215	2,272	2,377	2,589	7,235	8,350	8,279
	소계	55,899	55,171	55,150	11,613	11,852	12,186	117,188	118,167	118,779

주: 지육 기준임.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의 미국산 수입 비중은 약 1/4을 차지하는 데 비해,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의존도는 10% 내외로 크지 않은 편임.

- 미국은 일본, 중국,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며, 이 중 멕시코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함. 멕시코로 수출되는 돼지고기는 2017년 기준 83만 8천 톤으로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의 34.1%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5억 2천 만 달러에 달함.

- 아시아 국가 중 미국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임. 미국 돼지고기의 대중국 수출량은 일본(39만 4천 톤)보다 적은 27만 6천 톤이며 이는 미국 수출량의 11.2%임. 돼지고기 수출액도 4억 9천 만 달러에 그쳐 전체 수출액 중 7.8%에 불과함.
- 다만, NAFTA 재협상을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인 멕시코는 올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등 국제 돼지고기 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표 7〉 미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2015			2016			2017		
	수출액	수출량	수출량 비중	수출액	수출량	수출량 비중	수출액	수출량	수출량 비중
일본	1,565	407	19.2%	1,553	388	16.7%	1,626	394	16.0%
멕시코	1,253	732	34.6%	1,377	769	33.1%	1,521	838	34.1%
캐나다	772	200	9.4%	793	205	8.8%	787	208	8.5%
중국	319	176	8.3%	582	336	14.4%	489	276	11.2%
한국	469	168	7.9%	363	137	5.9%	473	178	7.2%
기타	1,020	434	20.5%	1,122	491	21.1%	1,369	564	23.0%
전체	5,398	2,117	100.0%	5,792	2,326	100.0%	6,267	2,458	100.0%

주: 국내에 반입되는 돼지고기의 HS코드(6단위)를 기준으로 계산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www.gtis.com/gta>, 2018년 7월 11일 검색.

- 중국은 주로 EU와 미국, 브라질, 칠레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7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과 수입액 비중은 각각 23.4%와 26.5%임.
- EU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42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6.9%였으며, 미국산 수입량은 58만 4천 톤으로 23.4%를 차지
- 미국산 돼지고기 비중은 2015년 15.2%에서 2017년 23.4%까지 증가한 반면, EU산 돼지고기는 2015년 70.3%에서 2017년 56.9%까지 감소

〈표 8〉 중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2015			2016			2017		
	수입액	수입량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수입량 비중
미국	482	242	15.2%	1,351	645	20.9%	1,162	584	23.4%
EU	1,907	1,120	70.3%	3,466	1,897	61.3%	2,437	1,421	56.9%
브라질	183	3	0.2%	536	81	2.6%	463	49	2.0%
칠레	89	57	3.6%	139	80	2.6%	103	68	2.7%
기타	77	171	10.7%	302	390	12.6%	214	376	15.1%
전체	2,738	1,593	100.0%	5,794	3,093	100.0%	4,378	2,4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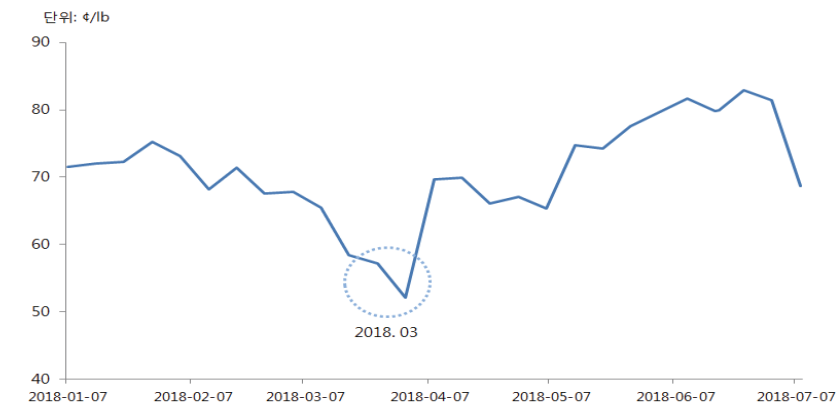
주: 국내에 반입되는 돼지고기의 HS코드(6단위)를 기준으로 계산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www.gtis.com/gta>, 2018년 7월 11일 검색.

중국과 멕시코의 보복조치로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단기간 감소할 수 있으며, 중국은 수입시장 다변화를 모색

-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면서 올해 돼지고기 국제 선물시장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두 차례 관세부과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 2018년 4월 중국이 돼지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2018년 3월 평균가격은 57.25센트(파운드, lb)로 전년 동월 65.67센트보다 12.8% 하락함.
- 2018년 7월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에 추가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선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9〉 돼지고기 선물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4.2. 미국, 중국 및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급 전망

□ 2018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7년 대비 증가 전망

- 연초에 미국은 모든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가로 인해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2017년 대비 3.8% 증가한 1,21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¹⁰⁾
- 당초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수입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하반기 수출전망이 불투명해졌음.
-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연간 35만 톤의 쿼터를 설정하고 할당량을 넘은 물량에 대해서는 7월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

10)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복조치를 시행함. 멕시코 국내가격이 높아 대멕시코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년도 84만 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두 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초에 USDA가 전망한 2018년 돼지고기 수출량 268만 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사육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5,465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돼지고기 생산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2018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7.6% 감소한 153만 톤으로 전망됨.¹¹⁾

〈표 9〉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공급			수요		
		생산	수입	소계	소비	수출	소계
2017	미국	11,722	506	12,228	9,597	2,589	12,186
	중국	53,500	1,650	55,150	54,935	215	55,150
	세계	110,928	7,884	118,812	110,500	8,279	118,779
2018 전망	미국	12,166	483	12,649	9,947	2,676	12,623
	중국	54,650	1,525	56,175	55,950	225	56,175
	세계	113,463	7,929	121,392	113,027	8,341	121,368

주: 지육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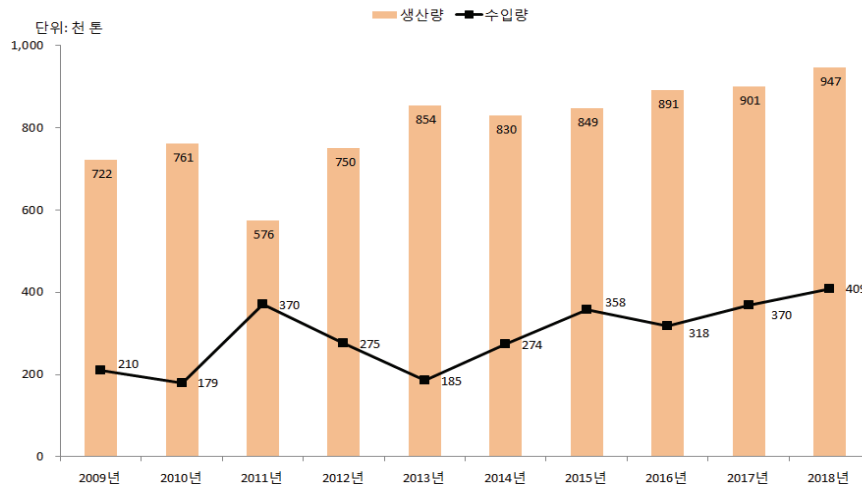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2018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과 수입은 최고치에 이를 전망

- 올해 우리나라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50만~1,170만 마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축량과 돼지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돼지 도축 마릿수는 1,757만 마리로 전년도보다 5.1% 증가하고, 돼지고기 생산량은 94만 7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돼지가격 하락과 햄, 캔 등 가공품 수요 증가로 전년도보다 10.6% 증가한 40만 9천 톤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EU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미국이 전체 수입량의 36.6%를 차지함. 미국에서는 냉동 앞다리가 많이 수입되며, EU에서는 냉동 삼겹살이 주로 수입됨.
 - 2018년은 5월까지 22만 6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앞다리가 10만 8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겹살이 8만 2천 톤, 목살이 2만 4천 톤 수입됨.

11) 2018년 5월까지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은 22.7위안/kg으로 전년 동 기간 27.4위안보다 17.2% 하락함(중국 농업부).

〈그림 10〉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및 전망



주: 2017년과 2018년은 전망치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수급 및 가격자료

〈표 10〉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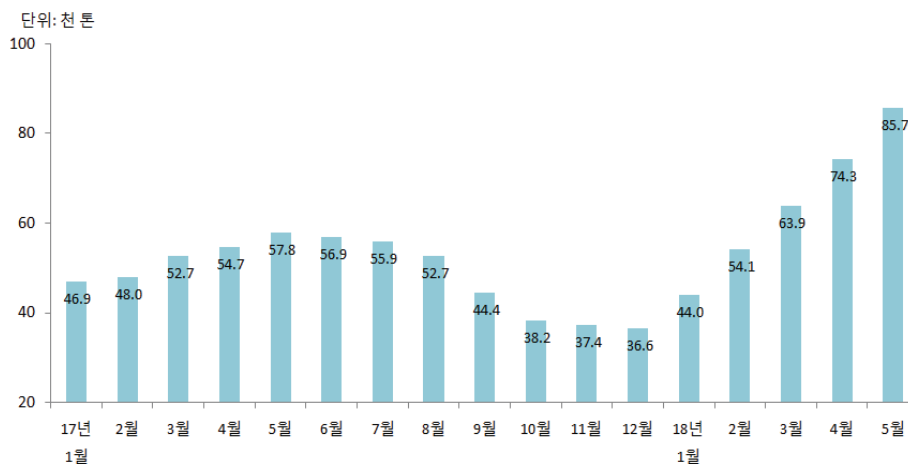
단위: 톤

구분	미국	독일	칠레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총수입량	미국 비중(%)
2015	129,363	58,486	26,562	16,695	15,267	15,492	8,723	357,923	36.1
2016	106,089	59,352	22,179	13,093	14,409	13,365	7,122	318,498	33.3
2017	135,085	80,152	21,779	14,706	22,650	13,895	7,441	369,218	36.6

주: 정육 기준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11〉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재고 동향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현재 수입 돼지고기 재고가 포화상태이고, 국내 사육규모 또한 역대 최대치에 도달해 있어 미중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 또한 최대 수준으로 냉동 비축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8년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2017년 12월 3만 6,562톤이었던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8년 5월 8만 5,731톤까지 증가해 전년 12월 대비 134.5% 증가함.

□ 중국의 관세부과가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임.

- 어미 돼지(모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 또한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국내 돼지고기 시장상황과 수입육 재고수준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세계 돼지고기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우려, 돼지고기 수입선 다변화 노력 필요

- 미국발 무역분쟁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북미로 확대되면서 장기화될 경우 세계 돼지고기 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수 있으며, 미국, 유럽, 캐나다, 브라질, 칠레 등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임.
- 미국과 유럽산 돼지고기의 비중이 국내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육과 관련해서는 국제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약이 따름.
- 더욱이 수출국별로 선호부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미국: 전지/갈비, EU: 삼겹살) 이러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위별로도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대두박 및 배합사료)과 돼지고기 수입단가의 하향세가 지속될 수 있어, 생산증가와 가격하락 국면에 직면해 있는 국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선제적인 사육 마릿수 조정과 수출을 포함해 소비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05 | 시사점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두와 돼지고기, 수수, 면화 등 중국의 대미 수입규모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
 - 대두의 경우, 남미의 공급확대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들의 생산 및 대중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대체 사료작물의 생산이나 곡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들의 소비시장별 점유율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가 일정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힘을 발휘하는 중국보다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생산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수입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국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대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미국 생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가공업체와 소비자 또한 상대적으로 더 비싼 남미산 대두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것임.
 -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중국과 멕시코의 보복조치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미국의 수출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해외시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을 감내하고, 장기적으로 남미와 유럽, 호주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대체작물 수입 확대,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국내 생산장려정책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미국의존도를 낮출 계획임.
 -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까지 대두, 수수 등의 수입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국내 경제상황, 농업여건 및 작물특성, 농축산물 수요 등을 감안하면 이들 품목의 증산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
-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 위주로 시행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의 농식품 무역이나 국내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한편,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국내업체와 소비자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음. 또한, 대두가격과 함께 옥수수, 밀 등의 곡물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과 돼지고기 수입가격의 인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육 마릿수 조정과 수출을 포함해 소비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인해 7월부터(일반 소비재 관세인하) 개방 폭이 확대된 중국의 농식품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중국의 수급상황에 따라서는 대두박 및 대두유, 돼지고기 가공품의 대중 수출도 가능할 수 있음.**
- 중국의 일반소비재 관세인하 조치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인하된 품목 중에서는 한·중 FTA 실행관세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존재.¹²⁾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인하 효과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한편, 한·미 FTA 개정 및 자동차 등으로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임. 더욱이 미국은 중국시장이 봉쇄됨에 따라 여분의 농축산물 수출물량을 기존 수입국들이 흡수하도록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국내 대두와 돼지고기 저장물량은 최대치에 근접한 상황이어서 가격조건이 유리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신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 이밖에도,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국은 검역(금지병해충 등)을 이유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음.
 - 통상 당국은 미국 측과 한·미 FTA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 폭과 경쟁국 대비 제고된 시장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나 가공 수요를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대미 수입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12) APTA가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은 전체 품목 중 28%에 대해 평균 33%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되며, 기존 체결된 한·중 FTA와 한·인도 CEPA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APTA 원산지 충족기준이 한·인도 CEPA보다 완화되면서 인도시장 진출 시 원산지 증명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짐.

^ KREI 농정포커스 v

2018년

-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창)
-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추이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익식)
-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KREI 농정포커스 ^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익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욱,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